

■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시각예술 창작산실 사업
- 회의일시
 - (1차) 2024년 12월 10일(화) 14:00~18:00
 - (2차) 2024년 12월 20일(금) - 2024년 12월 21일(토) 10:00~18:00
- 회의장소 : (1차)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영동, 박수진, 이윤희, 이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시각예술 창작산실>사업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수월성, 창의성을 지향하는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창작 및 매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계의 발전과 예술적 성취를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각예술 분야의 개인과 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구현 및 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 활동들을 진행 프로젝트의 특성상 소요 기간에 따른 계획 수립도 가능하게 단년(1개년) 사업과 다년(3개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시각예술 분야에서 신청 접수한 총 382건 중 <창작산실> 부분의 심의 대상은 295건(단년 257건, 다년 38건)으로 그중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건(단년 16건, 다년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모두 5명으로 사전에 공지되었으며 심의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심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사업의 중대성에 관해 충분히 소통했고 공정한 심사로 시종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전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심의 이후에도 본 사업추진이 목적인 바대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유익한 파급 효과들을 기대합니다.

2025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시각예술창작산실>사업의 심의 기준은 사업수행 역량(단년 40%, 다년 50%),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공통 30%), 기대효과(단년 30%, 다년 20%) 였습니다. 위의 심의 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입력한 사전 채점 결과를 토대로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심의회의를 통해 세부 심의방침과 심의기준을 정하여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병행했습니다.

1차 심의회의 후 1.5배수 이내로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어서 2차 인터뷰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 전원이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사전 질문 안을 준비한 다음 신청인의 PT와 인터뷰를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단계별 진행 목

표 등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심의 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 등의 관점에서 위원 전체 토론을 거친 후 위원 각자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정하는 순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사업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전시, 출판, 아카이브, 작가 프로모션 그리고 이들을 복합 구성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었습니다. 전체 지원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으며, 그중에 개별 작가의 프로모션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당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비중이 높아졌으나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의성 높은 주제전 기획은 오히려 희소한 편이었습니다. 작가 프로모션 경우에는 신작 제작, 아카이빙 구축과 함께 상당수가 전시기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작고하신 작가이거나 원로작가를 위한 연구 성격의 전시보다 중진 현역 작가 위주의 전시를 포함해서 관련 프로젝트를 신청한 기획자가 많았던 것도 한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비평집, 자료집 출간 사업의 신청이 증가해 아카이브 작업과 함께 기록 사업이 업계의 중요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역시 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상 사업 신청 건들을 심의하면서 공통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 프로젝트의 적합성 판단에 유의하면서, 먼저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기한 내 결과의 완성도 그리고 예산 안배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음도 밝혀둡니다.

신청 사업들의 분야별 경향성에서 주목할 수 있었던 특징 중에는 단년과 다년 사업 양쪽에서 다수의 전시기획에 중복적으로 관련된 기획자나 작가들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정 장르에 비평가나 주요 작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금 지원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프로젝트일수록 계획 단계에서 참여 인원들 간의 연대나 협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의 인력들이 폭넓게 고루 참여하고 연합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단년 혹은 다년 사업에서 작가 프로모션 신청과 선정이 많았던 점도 올해 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중에는 국내에서 역량 있게 활동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작가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이거나 역으로 해외 중심 활동 작가의 국내 소개 프로젝트였는데 모두 동시대 한국현대미술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시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새롭게 조명하려는 중요 작가들이거나 괄목할 만한 성취를 수반한 작가들 일지라도 일시에 다 선정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지원신청 금액의 하한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간 신청액의 편차가 심했습니다. 기금 사용의 합목적성이나 사업 결과 대비 효율성, 형평성 측면도 많이 고려하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천에 큰 무리가 없도록 배려하면서 지원결정액 조정은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업에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들이더라도 내용상 질적으로 큰 차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중론들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선정된 경우는 공적 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의 성과가 개방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특히 다년 사업의 경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진지하고 성실한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시각예술 창작산실 심의위원회 일동